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선플인성신문

선플운동 www.sunfull.or.kr

제 15 호 2023년 1월 17일 (화)

밝은 사회를 위한 좋은 언어 사용 문화를 만드는 신문 안내 : (02) 535-3449

여야 국회의원 299명 전원 선플서명…올해 선플상 시상식 빛냈다

‘제9회 아름다운말 국회의원 선플상 시상식’ 개최
300명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수상자 직접 선정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은 최근 여야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국회의원 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선플재단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선플정치선언문’은 정제된 언어사용의 의정활동으로 사회 각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자는 게 취지다. 여야 의원들의 100% 선플 서명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선플재단은 설명했다.

21대 국회선플위원회 여당 공동위원장 윤재옥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은 “여야 구분없이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선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선한 언어 사용이 의정활동 전반에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국회선플위원회 야당 공동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악플과 혐오표현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 갈등을 부추겨 막대한 갈등비용을 만들어 낸다”며, “앞으로 배려와 존중의 선플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병철 이사장은 “선플운동 15년만에 여야의원 299명 전원이 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서명 의원들로부터 ‘의정활동시 언행을 조심하고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힘 쓰겠다는 말을 들을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 보람을 느낀다. 이를 계기로 정쟁대신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선언문에는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참여하며, 아름다운 말과 글, 태도와 행동으로 정치권 동료들을 대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국민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나갈 것임을 국가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라고 쓰였다.

이런 가운데 (재)선플재단은 국회선플위원회(공동위원장 이채익 의원, 윤관석 의원 외)와 공동으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12월 7일(수)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과 시상을 했다. 청소년 기자단은 국회 회의록 시스템 (likms.assembly.go.kr/record)에 기록된 지난 1년 간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에서 순화언어와 비순화언어를 분석하여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 국회의원 선플대상 3명과 선플상 28명, 공로상 4명을 선정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다.

선플대상에는 김진표(무소속, 경기 수원시무), 이채익(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황희(민주당, 서울 양천구갑) 의원이 선정됐으며, 선플상에는 여야 의원 31명이 선정됐다. 또한, 공로상에는 윤관석(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홍익표(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서정숙(국민의힘, 비례대표),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이 선정됐다.

선플상 수상자(가나다순)는 강준현(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구자근(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권영세(국민의힘, 울용산구), 권칠승(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김경만(민주당, 비례대표),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김민철(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김병욱(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성환(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김승원(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김희곤(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민병덕(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박대출(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박영순(민주당, 대전 대덕구), 백혜련(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윤영덕(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윤창현(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헌(민주당, 울산 북구), 이철규(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임오경(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전용기(민주당, 비례대표), 전해철(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필모(민주당, 비례대표), 정희용(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해진(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추경호(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한준호(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다.

선플대상을 수상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선정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회내 선플문화를 확산시켜 의원들의 언어 사용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선플대상을 수상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순수한 학생들이 선정한 상이라 더욱 자랑스럽다.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와 행동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플대상을 수상한 민주당 황희 의원도 “청소년들의 응원의 뜻으로 여기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선플위원회 여당 공동위원장 윤재옥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은 “여야 구분없이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선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선한 언어 사용이 의정활동 전반에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국회선플위원회 야당 공동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악플과 혐오표현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 갈등을 부추겨 막대한 갈등비용 만들어 낸다”며, “앞으로 배려와 존중의 선플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응태 기자

(재)선플재단, 제1회 ‘악플 없는 날’ 기념식 메타버스에서 개최

5월 23일, 악플없는날 챌린지, 전국 400여개 학교와 단체 미국, 호주 등 10여 개국 청소년 참여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은 매년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하고 메타버스 이프랜드에서 ‘제1회 악플 없는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악플 없는 날’은 15년전 선플운동이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된 5월 23일, 이날 하루만이라도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에서 선포됐다.

선플재단은 5월 23일 ‘악플 없는 날’에 앞서 5/17~5/23까지 일주일 간 ‘악플 없는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40여개 선플운동 참가 학교와 단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악플추방 거리캠페인을 개최하고, ‘표어, 수필, UCC, 포스터 공모전’,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사이버 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참여학교로는 광운Ai고(교사 정지욱), 서울 대신중(교사 공원기, 민세영), 경기 숙지고(교사 최연주), 광주 정광고(교사 고훈), 대구 상서중(교사 박용욱), 원주 상지여고(교사 이정규), 인천보건고(교사 유경숙), 원주 육민관중(교사 이현미), 경기 안산해솔중(교사 강근호), 용인 서천초(교사 김철래), 경북 영주중앙초(교사 주광혁), 성남 태원고(교사 권윤희)가 참여했다.

또한 인천 연희청소년센터(청소년지도자 김지혜), 안성청소년문화의집(관장 조인호), 양주 예향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지도자 안수연), 의정부봉사단(지도자 이애란), 제주 은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도자 고용자) 등 청소년 시설 단체도 참여했다.

악플추방을 위한 메세지를 적은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후 제출하고, 친한 친구 3명에게 챌린지를 추천하는 ‘악플 없는 날 릴레이 챌린지’에는 국내 청소년과 학부모들 뿐만아니라 미국, 호주,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캄보디아, 인도, 네덜란드,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서 참여해 ‘악플 없는 날 챌린지’ 홈페이지(http://523nohatecommentsday.sunfull.or.kr)에 등록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5월 23일, 일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악플의 폐해를 인식하고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의 ‘악플 없는 날’을 최초로 선포했다”며, “선플운동은 청소년 인성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참여 단체와 기업에서는 ESG 선플운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며 선플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 이상종 광운Ai고등학교 교장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하여 참여하는 선플운동은 청소년 인성교육에 큰 효과를 보인다”고 말했고, 인천 연희청소년센터 김지혜 청소년지도자는 “사이버 언어 폭력 예방을 위한 선플운동은 청소년들의 언어 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2022 선플활동결과보고대회 및 시상식 개최

인터넷 악플추방 선플 공모전 및 선플자원봉사대회 4년만에 개최된 오프라인 시상식 개최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12월 17일(수), 중앙대학교 법학관 대강당에서 ‘2022 선플활동결과 보고대회 및 선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플활동 보고대회는 2022년 각급 학교 및 동아리, 공모전, SNS기자단 활동을 통해 악플추방을 위한 선플캠페인을 펼친 우수 학생들과 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 활동사례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메타버스 시상식으로 개최되어 온 선플 시상식이 4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교육부 장관상에는 표어부문 대상 영선중학교 이수민 학생, 수필부문 대상 공원기 교사가 수상했고, 문체부 장관상에는 만화부문 대상 대학생 SNS기자단, SNS부문 대상 나산초등학교 박홍수 교사가 수상했다.

또한, 과학기술부장관상에는 UCC부문 대상 오산고등학교 선플동아리, 청소년지도(시설)부문에는 의정부청소년수련관 박현숙 청소년지도자가 수상했고, 법무부 장관상에는 청소년지도(학교)부문 인천보건고등학교 유경숙 교사, 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선플논문부문 성균관대학교 김나영 학생, 사진부문 관동초등학교 박민기 학생이 수상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악플러들의 문제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선플운동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악플을 보면 절대로 방관만 하지 말고, 왜 그글이 잘못된 글인지를 댓글로 바로잡아주고, 선플달기를 통해 악플피해자 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세지를 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07년부터 인터넷상의 ‘악플과 헤이트스피치(혐오표현)’ 추방활동을 통해 인터넷평화운동을 펼쳐온 선플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를 통해 ‘생명과 인권 존중’,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 조성’ 등 ‘긍정에너지 전파’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선플운동에는 국내외 7천여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달기운동 홈페이지에는 83여만 명의 회원들이 올린 선플이 985만 개를 넘어섰다.

서미정 기자

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선플대상〉

이채익 국회의원 (선플 大賞)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직접 선정하고 시상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선플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록에서 순화언어와 비순화언어를 분석하여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한 것이라고 하는데 순수한 학생들의 눈으로 국회의원들의 언어를 바라보고 분석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와 행동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 상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황 희 국회의원 (선플 大賞)

선플인성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에서 대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직접 평가하고 선정해서 주신 상이라 훨씬 더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이 아주 방대했을 텐데 그 많은 국회 회의록을 일일이 검토해주신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큰 상을 제게 주신 덕분에 '아름다운 말'을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내라고 국민이 직접 뽑아주신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를 명심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바른말로써 국민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플상〉

서정숙 의원 (공로상)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사랑과 감동의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자 힘쓰시는 (재)선플재단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이바지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언어로 타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스스로에게도 행복과 보람 가득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다시 한번 선플상 수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통해 국회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공로상)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이라는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말과 글 한마디에 언제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평가가 뒤따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거친 표현들이 국회와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말과 글,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국민만 생각하는 바른 생각으로 청소년들이 정치인의 언어를 보고 들으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매사에 자중자애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품격 있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문표 의원 (공로상)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홍문표입니다.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인으로서, 언제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신중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수상자를 전국 300여 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기자단이 지난 1년간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직접 분석하여 선정했다고 하니 더욱 뜻깊습니다.

품격 있는 언어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이 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중하고 따뜻한 언행을 사용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국민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공로상)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익표입니다.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터넷상의 '악플'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언어와 혐오 발언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단절시킬뿐더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시킵니다.

배려와 존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만큼, 우리 사회의 선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플재단의 활동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국회에서 바른 말과 글을 쓰는 문화가 확산되어, 국민들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플상〉

강준현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강준현입니다.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회의원의 말은 곧 자신의 얼굴이며 국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단 한마디의 말에도 국민을 위한 배려와 고민을 담아 신중하게 발언했습니다.

선플 기자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발언들이 모인 회의록을 바탕으로 수여해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고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말로 품격 있는 질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타의 모범이 되는 강준현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의원 (선플상)

평소 아름다운 말 사용을 알리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다방면에 걸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선플재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사다난했던 2022년의 끝자락에 특별히 뜻깊은 수상을 하게되어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28세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의 진심을 누구에게도 여과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가훈을 지켜왔습니다. 가리지 않고, 속이지 않고 마음속 깊은 본심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약속에 조심하고 표현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을 뿐인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대표단 여러분께서 직접 수상자로 호명해주셔서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선플재단 여러분과 청소년 기자단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열심히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권영세 의원 (선플상)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라고 하니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언어폭력과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악플들 사이에서 말이 가진 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는 화살이 되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며 항상 모범적인 언행으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선플재단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의원 (선플상)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것이 약이 된 것 같습니다. 주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위치여서, 아무래도 절제되고 겸손한 언행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지사지를 통해 논리적이면서도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상대를 설득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도 확신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사회적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제되지 못한 말로 인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논의가 파행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생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행으로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이 수여하는 상이라 남다른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다 품격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지우는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선플상)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말과 글이란 행동으로 담지 못하는 감정들을 이성을 통해 정제한 것으로서 그 본질은 '소통'과 '나눔'에 있습니다.

저, 김기현의 언어가 아름답게 쓰였다면, 그것을 나누고 공유한 동료 의원분들의 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의 품격이란 세월을 더하고, 그 사람의 인성이 더해져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수상을 통해 새기게 된 언어의 품격에 대해 잊지 않도록 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과 아름다운 언어를 나누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철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김민철입니다.

'제 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상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정활동에 있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해 국회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국민과 소통에 있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을 실천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의원 (선플상)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 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직접 회의록을 살펴보고 선정한 상이라고 생각하니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낍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숙지하고, 항상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정쟁과 고성이 빈번한 국회에서 모질고 날이 선 말로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 (선플상)

청소년 기자단이 선정한 '제 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기자단 여러분이 국회에서의 발언들을 살피고 선정한 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현대사회의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익명성에서 비롯되는 악플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동반했습니다. 수년간 악플 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지만, 최근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등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플상은 악플로 인한 유명인들의 자살이 이어지자 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상입니다. 깨끗한 인터넷 문화 실현을 위해 15년간 선플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선플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노력들이 모여 악플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선플상〉

김승원 의원 (선플상)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해 아름다운 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선플재단과 청소년 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께서 언론매체에 비치는 정치인들의 정쟁과 욕설을 보며 극에 달한 정치혐오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제 할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를 위한 단초입니다. 이번 선플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바른말과 고운 말을 사용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희곤 의원 (선플상)

먼저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이라는 귀한 상을 주신 재단법인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상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2개월간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해 직접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큰 명예와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평소 국정감사와 상임위 및 각종 회의에서 품위 있는 말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치 논리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한 결과,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렇게 뜻 깊고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으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은 절제하고, 말의 품격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민병덕 의원 (선플상)

'2022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수상의 영광을 주신 청소년 SNS 기자단 여러분과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특히 우리나라 학생 300명이 1년치 회의록을 분석하여 선정한 상이라 더욱 뜻깊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불필요하게 험한 말은 지양하고 정책적인 주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려 한 의정활동을 우리 청소년들이 공감해 주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선플상 수상의 의미를 늘 되새기며 좋은 어른의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대의 현안들에 대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를 우선시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 (선플상)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하고 수여하는 선플상을 받게 돼 그 어느 상보다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국회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선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자신의 인격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백혜련 의원 (선플상)

2022년 청소년이 선정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직접 국회 회의록을 꼼꼼히 분석해 평가하고 선정했다고 하니, 그 어느 상보다 뜻깊게 생각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치인이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한명 한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상이 주는 의미가 크고,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 있듯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창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공정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회의 품위를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무위원장인 제가 더욱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윤창현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의 영예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국회 회의록을 보고 수여해 주신 상이라고 하니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가진 힘이 큰 만큼 항상 조심하라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책임한 말과 폭언 대신 책임과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 막말이 난무하는 여의도 기성 정치의 문화를 바꾸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뜻깊은 상의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여러분과 국회선플위원회, (재)선플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헌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울산 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헌입니다. 먼저, 저를 선플상에 선정해 주신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플상은 300명의 청소년 기자단이 직접 1년치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방대한 자료였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와 순수함이 담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선플상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모두가 함께한 국회선플정치 선언문이 무색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 (선플상)

청소년기자단 여러분들께서 직접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면서까지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만큼,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끼게 됩니다.

작금의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거친 말들이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언무책(易言無責), 책임 없이 뱉은 말들이 불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국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게 주신 선플상은 그 명칭부터 언행에 있어 태산같은 무거움을 느껴달라는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말 한마디,한마디에 신중함을 기하겠습니다.국회가 존중의 언어를 주고받는, 품격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상을 주신 (재)선플재단 SNS학생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기 의원 (선플상)

먼저 '제 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수상자로 선정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 막 임기를 시작했을 무렵 꽃다운 청춘 한 분이 악플로 인해 세상을 등지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발 빠른 조치로 플랫폼의 댓글을 막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악플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10·29 참사로 친구를 잃고 고통받던 분이 악플에 결국 삶의 의지를 잃으시는 일이 일어나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제도권에서의 입법이나 제도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거리낌 없이 남긴 악플 하나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가를 깨닫고 스스로 자제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선플 운동을 통해 많은 분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저 역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선플상)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직접 의정활동 과정의 발언과 글을 직접 살피고 분석해 선정한 상이기에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품격있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정치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정필모 의원 (선플상)

2022년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SNS 등 온라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플 등 혼탁한 언어는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배려와 존중의 언어문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소년 여러분께서 주신 이 상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선한 말, 선한 글로 아름다운 국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용 의원 (선플상)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께서 국회의원의 말과 글을 직접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는 더욱 남다른 것 같습니다.

"말로 베인 상처는 칼로 벤 상처보다 더욱더 아프다"라고 합니다. 최근 SNS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이라는 가면을 쓴 채 상대방에게 각종 막말과 악성댓글, 가짜뉴스 등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중유향(言中有響)'을 새기고 저부터 선플 운동에 앞장서면서, 품격있는 말과 글, 행동으로 국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매사에 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선플상)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조해진 의원입니다.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플상은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해서 주는 상이기에 그 어느 상보다 의미 있고, 명예로운 상입니다. 이 상은 언어 품격을 높여 좀 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의미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아름답고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은 대결과 상극의 정치문화를 상생과 협력의 문화로 바꿔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이 국회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곧고 바른말을 쓰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의원 (선플상)

오늘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상을 받아봤는데, 오늘 주신 아름다운 말 선플상은 정말 뿌듯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선플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바르고 고운 언어를 사용해서 품격을 잃지 않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와 정치인의 언어로 인해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참 많은데요, 저를 비롯한 선플상 수상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좋은 말과 행동으로 정치가 국민들 마음을 보듬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MZ세대 청소년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추경호 의원 (선플상)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거겠죠. 그런 점에서 온·오프라인에서 배려와 격려의 문화를 확산하고, 사람을 살리는 긍정의 메시지 전파에 힘쓰시는 선플재단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밝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치는 '말'에서 시작하고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여야 협상도 말에서 시작하고, 수많은 정책 홍보도 우리는 다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의 품격이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얻고,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막말 정치, 혐오 정치에서 탈피해야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여야가 서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걷어내고, 협상의 파트너이자 국민을 섬기는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 국회의원 전원이 선플상을 받는 날도 오리라 생각합니다.

한준호 의원 (선플상)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2022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소통과 화합의 말하기를 실천한 의원으로 꼽혀 더욱 뜻깊습니다. 악성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해 개인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사회는 분열된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출수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선플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며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바른 언행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상호존중의 정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플 10대뉴스]

◆ 선플재단과 국회선플위원회, '다문화가족 · 재한외국인 존중 캠페인' 개최 준비

앞줄 왼쪽부터 세 번째 이채익 국회의원, 다섯 번째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중앙대 석좌교수).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교수)은 국회선플위원회(공동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와 공동으로 '다문화가족·재한외국인 존중 캠페인' 준비를 위한 예비간담회를 17일, AC호텔 바이 메리어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인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과 이채익 국회의원과 함께 Gandi Sulistiyanto 인도네시아 대사, Murat Tamer 튀르키예 대사 Dizon-De Vega 필리핀 대사, Nguyen Vu Tung 주한 베트남 대사 등 4개국 대사들이 참석하여 한국 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언어와 행동 대신에 상호 존중하자는 캠페인 전개에 뜻을 모았다.

이채익 국회선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다문화 가족과 재한외국인을 존중하자는 캠페인은 200여만 명의 재한 외국인과 함께 공존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한 캠페인이고, 아주 시의적절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각국의 대사관들과 함께 다문화와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an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캠페인이 인도네시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운동이라고 생각해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존중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이 캠페인이 인도네시아에도 도입되어 이 운동을 최초로 만든 분들을 인도네시아로 초청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문화와 민족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캠페인이 혐오 발언 대신 좋은 댓글, 좋은 언어를 장려하기 때문에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는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존중 캠페인이 공존, 관용, 평화를 증진하는 훌륭한 캠페인이며, Sunfull 운동의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며, "많은 언론에서 이 캠페인을 보도해주면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고 존중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ria Theresa B. Dizon-De Vega 필리핀 대사는 "현재 약 54,000명의 필리핀인이 한국에 살며 일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존중 캠페인'이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존중, 배려, 친절, 인권의 공동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제공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Vu Tung 주한 베트남 대사는 이 캠페인에 참여 이유를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시민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대사관의 노력과 일치하기 때문"이라며, "이 캠페인이 베트남 시민들이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베트남 또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병철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나라다. 가슴 아프게도 종종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에게 대해 차별적인 언어와 행동에 대한 사건들을 접할 수 있었다"며, "지구촌시대에 인류는 모두 한지붕아래에 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존중 받기위해서는 우리부터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내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존중합시다' 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민병철 이사장은 지난 16년 동안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 악플이나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존중의 언어로 인권을 보호하자는 선플운동을 해왔으며, 현재 7천여 개의 학교와 여야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의정활동시 아름다운 언어로 국민이 원하는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을 마쳤다.

◆ 선플재단, '제9회 아름다운말 국회의원 선플상 시상식' 개최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은 최근 여야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국회의원 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을 마친 가운데 12월 7일(수),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재)선플재단은 국회선플위원회(공동위원장 이채익 의원·윤관석 의원 등)와 공동으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하고 시상했다. 청소년 기자단은 국회 회의록 시스템 (likms.assembly.go.kr/record)에 기록된 지난 1년 간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에서 순화언어와 비순화언어를 분석하여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 국회의원 선플대상 3명과 선플상 28명, 공로상 4명을 선정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다.

선플대상에는 김진표(무소속, 경기 수원시무), 이채익(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황희(민주당, 서울 양천구갑) 의원이 선정됐으며, 선플상에는 여야 의원 31명이 선정됐다. 또한, 공로상에는 윤관석(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홍익표(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서정숙(국민의힘, 비례대표),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이 선정됐다.

선플상 수상자(가나다순)는 강준현(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구자근(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권영세(국민의힘, 울 용산구), 권칠승(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김경만(민주당, 비례대표),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김민철(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김병욱(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성환(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김승원(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김희곤(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민병덕(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박대출(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박영순(민주당, 대전 대덕구), 백혜련(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윤영덕(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윤창현(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헌(민주당, 울산 북구), 이철규(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임오경(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전용기(민주당, 비례대표), 전해철(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필모(민주당, 비례대표), 정희용(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해진(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추경호(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한준호(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다.

선플대상을 수상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선정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회내 선플문화를 확산시켜 의원들의 언어 사용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선플대상을 수상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순수한 학생들이 선정한 상이라 더욱 자랑스럽다.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와 행동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플대상을 수상한 민주당 황희 의원도 "청소년들의 응원의 뜻으로 여기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선플위원회 여당 공동위원장 윤재옥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은 "여야 구분 없이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선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선한 언어 사용에 의정활동 전반에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국회선플위원회 야당 공동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악플과 혐오표현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극단적인 선택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 갈등을 부추겨 막대한 갈등비용을 만들어 낸다"며, "앞으로 배려와 존중의 선플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병철 이사장은 "선플운동 15년만에 여야의원 299명 전원이 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서명 의원들로부터 '의정활동시 언행을 조심하고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힘 쓰겠다는 말을 들을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 보람을 느낀다. 이를 계기로 정쟁대신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술리스티얀토 소에르만 인도네시아 대사, 찌릉 보톰랑세이(CHRING BOTUMRANGSAY) 캄보디아 대사, 무랏 타메르(Murat Tamer)터키 지정 대사 등이 참여해 선플 운동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이들은 자국에서 학생들과 의원들이 함께 선플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플재단이 추진하는 '의원 선플정치선언문'은 정제된 언어사용의 의정활동으로 사회 각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자는 게 취지다. 여야 의원들의 100% 선플 서명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선플재단은 설명했다.

선언문에는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참여하며, 아름다운 말과 글, 태도와 행동으로 정치권 동료들을 대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국민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나갈 것임을 국가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라고 쓰였다.

◆ 엠버추얼, (재)선플재단과 업무협약(MOU)체결

선플재단, Ai 가상인간과 함께 선플운동으로 사이버 세상 정화에 나선다

Ai가상인간 전문 기업 엠버추얼은 (재)선플재단과 선플문화운동의 확산과 건전한 사이버문화조성을 위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Ai가상인간 전문 기업 엠버추얼과 선플재단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상의 선플운동의 확산과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식에서 악플과 혐오표현 추방을 위한 선플운동 확산으로 건전한 문화 조성 공동사업추진과 사업추진 시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상호제공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Ai가상인간 전문 기업 엠버추얼과 선플재단이 선플운동 홍보를 위해 엠버추얼의 가상인간을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선플운동 홍보에 활용되는 엠버추얼의 Ai기반 가상인간은 사람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자연스러운 가상인간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엠버추얼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상인간 제작 △가상인간을 활용한 마케팅 △가상인간 SNS대행 △가상인간 영상제작 등을 활용하여 선플운동 홍보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사이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i 가상 인간이 선플홍보대사가 되어 활동하게 되었다"며, "응원과 배려의 선플문화를 널리 확산하는데 인공지능 선플홍보대사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고, 엠버추얼 이화영 대표는 "엠버추얼의 Ai가상인간을 활용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플운동 확산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네티즌들에게 따뜻한 선플이 담긴 메세지를 전달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캠페인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소년들이 선정한 '우리 동네 선플친절가게'

용인 서천초등학교(교장 이진경)는 2022년 10월 한 달 동안 우리 동네 경제 살리기 칭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선정한 우리 동네 선플 친절 가게 프로젝트'를 실천했다. 서천초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친절가게 1호점으로 또또분식(서천동 소재)을 선정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상빈(서천초 5학년) 학생은 "우리들이 자주 다니는 동네의 가게 사장님을 어린이들이 칭찬해 준다는 생각에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또분식 사장님은 "평소 서천초 학생들이 예의바르게 인사도 잘하고 정말 착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나를 칭찬해 주어서 정말 감격스럽다. 앞으로도 맛과 영양은 물론 친절함을 잃지 않고 열심히 선플을 알리고 실천하는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초 이진경 교장은 "선플친절가게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가게의 사장님들과 우리 서천 학생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고 선플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선플재단의 이찬성 국장은 "이러한 생활 밀착형 선플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플에 관심을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선플운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선정한 우리 동네 선플 친절 가게 프로젝트의 목적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의 가게들 중 친절하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는 가게 사장님을 칭찬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체감함으로서 평소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 즉, 선플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교육적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서천선플누리단(SSC)학생들은 학생자치회와 협력하여 선플공모전 작품 응모, 교내 선플 캠페인, 온라인 선플 달기 활동 등을 더 활기차게 펼쳐 나갈 예정이다.

서천초등학교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로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학부모단체, 마을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혁신교육 3기를 선도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다.

◆ 대학생 멘토가 알려주는 선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재)선플재단 소속 대학생 선플기자단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팀(팀장 이윤민 고려대학교 학생)이 대신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 24일(금), '선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팀 소속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교육 교보재를 통해 대신중학교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함양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상반되는 관점에서

[선플 10대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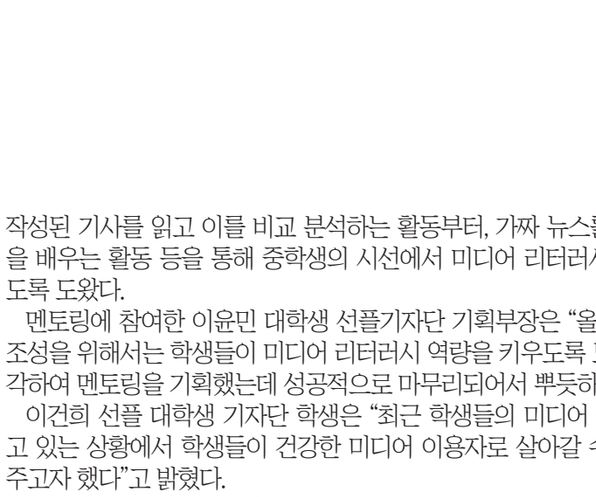
작성된 기사를 읽고 이를 비교 분석하는 활동부터,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활동 등을 통해 중학생의 시선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멘토링에 참여한 이윤민 대학생 선플기자단 기획부장은 “올바른 선플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여 멘토링을 기획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건희 선플 대학생 기자단 학생은 “최근 학생들의 미디어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미디어 이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대신중학교 공원기 선플누리단 지도교사는 “대학생 누나, 형들이 동생들의 인성교육과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봉사를 재미있게 해주니, 중학생들도 집중해서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전국 선플교사협의회를 통해 전국 학교로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 서울사립학교장회와 선플인성교육 업무협약



서울사립학교장회(회장 이상종)는 5월 23일(월),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소강당(1층)에서 조선영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 배용숙 전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 박재련 전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 조형래 전 서울사립학교장회 회장, 한정훈 학교법인 문영학원 학원장,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 이재구 전 서울사립학교장회 회장과 서울시 사립학교장회 교장 100여 명, 선플우수 지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뛰는 서울 사학 교육!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2022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사립학교장회 이상종 회장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사립학교장회가 최근 사립학교법, 교육용 토지에 대한 과세, 사립학교 교원 채용 등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옥죄어 오는 현실 속에서 서울 사학이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역사적 전통의 계승 발전, 서울 사학의 자존심 회복, 미래 지향적 교육 구현, 사랑과 봉사의 세계인 육성의 과제로 서울사립학교장회의 비전을 발표했다.

역사적 전통의 계승 발전을 위해 서울사립학교장회와 대한사립학교장회의 전 회장님과 오랜시간 서울사립학교장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던 서울사립학교 학원장님들을 서울사립학교장회와 서울교육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서울사립학교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미래 지향적 명품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New 인재 양성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육용 부지 과세 철회, 교원 채용의 자율성 부여,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조정, 학급 내 다양한 학습 편차 해결 등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의 필요성과 다양한 홍보 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서울사립학교장회의 전·현직 교장선생님과 교사도 참여하는 서울교육연구원을 출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장단의 조직을 분야별로 강화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활동하여 서울사립학교장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나날이 심해가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플재단(선플운동본부)과 선플인성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선플인성교육 특강을 통하여 악플 없는 날로 선포된 5월 23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사립학교장회와 선플인성교육 업무 협약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 5월 23일, 제1회 ‘악플 없는 날’ 기념식 메타버스에서 개최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은 매년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하고, 메타버스 이프랜드에서 ‘제1회 악플 없는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악플 없는 날’은 15년전 선플운동이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된 5월 23일, 이날 하루만이라도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에서 선포됐다.

선플재단은 5월 23일 ‘악플 없는 날’에 앞서 5/17~5/23까지 일주일 간 ‘악플 없는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40여개 선플운동 참가 학교와 단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악플추방 거리캠페인을 개최하고, ‘표어, 수필, UCC, 포스터 공모전’,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사이버 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참여학교로는 광운Ai고(교사 정지욱), 서울 대신중(교사 공원기, 민세영), 경기 숙지고(교사 최연주), 광주 정광고(교사 고훈), 대구 상서중(교사 박용욱), 원주 상지여고(교사 이정규), 인천보건고(교사 유경숙), 원주 육민관중(교사 이현미), 경기 안산해솔중(교사 강근호), 용인 서천초(교사 김철래), 경북 영주중앙초(교사 주광혁), 성남 태원고(교사 권윤희)가 참여했다.

또한 인천 연희청소년센터(청소년지도자 김지혜), 안성청소년문화의집(관장 조인호), 양주 예향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지도자 안수연), 의정부봉사단(지도자 이애란), 제주 은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도자 고용자) 등 청소년 시설 단체도 참여했다.

악플추방을 위한 메세지를 적은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후 제출하고, 친한 친구 3명에게 챌린지를 추천하는 ‘악플 없는 날 릴레이 챌린지’에는 국내 청소년과 학부모들 뿐만아니라 미국, 호주,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캄보디아, 인도, 네덜란드,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서 참여해 ‘악플 없는 날 챌린지’ 홈페이지 (http://523nohatecommentsday.sunfull.or.kr)에 등록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5월 23일, 일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악플의 폐해를 인식하고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의 ‘악플 없는 날’을 최초로 선포했다”며, “선플운동은 청소년 인성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참여 단체와 기업에서는 ESG 선플운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며 선플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 이상종 광운Ai고등학교 교장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하여 참여하는 선플운동은 청소년 인성교육에 큰 효과를 보인다”고 말했고, 인천 연희청소년센터 김지혜 청소년지도자는 “사이버 언어 폭력 예방을 위한 선플운동은 청소년들의 언어 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농협중앙회와 ESG 가치확산 선플 실천 협약

선플재단은 5월 23일(월) ‘악플 없는 날’을 맞아 농협중앙회와 서울 중구 본관에서 ‘ESG 선플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농협중앙회 이재식 전무이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서정숙 국회의원과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 티지와이 김재곤 대표, 조종식 롯데호텔 자문, 농협 대학생 봉사단 ‘N돌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선플재단과 농협은 소통과 화합의 선플운동을 통해 정서적 온기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농협 대학생 봉사단인 N돌핀 단원들은 선플 선언문을 낭독하며 인터넷상에서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데 앞장서고 혐오표현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협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해 국민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온라인 영역에서도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농협에서 ESG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선플운동에 동참해줘 감사드린다”며 “농협과 함께 ‘인권과 인성교육’,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전반에 갈등비용을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하겠다” 고 답했다.

◆ 청소년선플누리단, 지방선거 공명선거 거리 캠페인 펼쳐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소속 대학생선플기자단(회장 김나영 성균관대 학생)과 대신중·고등학생 선플누리단 학생 40여 명은 5월 14일(토),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시민들에게 6월 1일 개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및 사전투표(5/27~28) 안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명선거 선플 캠페인에 참여한 선플운동 참여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공명선거 응원 선플 메시지’ 서명을 받고, 사전 투표일(5/27~28)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는 총 7장(세종 4장, 제주 5장)’이며, ‘교육감 선거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는 내용 등을 거리 캠페인을 통해 알렸다.

캠페인에 참여한 김나영 대학생선플기자단 회장은 “코로나로 진행이 어려웠던 거리캠페인을 학생들과 다시 준비하여 거리로 나왔는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고, 이윤민 고려대학교 학생은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과 이번 투표의 특이한 점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원기 선플기자단 지도교사 (대신중학교 교사)는 “선플운동 참여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유인물 등을 직접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선플공명선거 취지를 알리는 거리캠페인에 나섰다”며, “앞으로 선플공명선거 캠페인을 더욱 활발히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중앙대 석좌교수)는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은 긍정에너지를 확산시키고, 사회갈등비용을 크게 감소시켜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근거없는 비방 대신 정책선거를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DGB금융센터에서 ‘악플 없는 날’ 선포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는 4월 19일(화), DGB금융센터 대강당에서 선플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하며 이날 하루만이라도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악플 없는 날’ (No Hate Comments Day)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플누리단 청소년들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국회선플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선플 ESG 기업인 DGB생명 김성한 대표와 이상종 전국선플교사협의회장을 비롯해 광운Ai고등학교, 오산고등학교 등 선플누리단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가상현실의 도입 등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이다. 오늘을 계기로 선플운동과 같은 자정 노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정숙 국회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은 “악플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배려와 화합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선플운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선플운동을 기업 ESG 경영의 주요 요소로 도입한 DGB생명 김성한 대표는 “지속가능한 EDG경영을 위해 도입한 사내 선플운동이 기업문화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방송인 서경석씨는 “무심코 올린 악성 댓글이 누군가에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된다”며, “악플 없는 날 선포를 계기로 이날 하루 만이라도 악플을 달지 말고, 선한 댓글 달기를 생활화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선플운동을 최초로 창안한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5월 23일, 단 하루만이라도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의 ‘악플 없는 날’을 선포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선플운동을 ESG 경영의 주요 요소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동참하시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선플웹툰 대상(밤그릇식당 신세아 김나영 김지수 정희윤 홍예린 신채현)

선플UCC 대상(오산고등학교 교사 한규천, 이아연 학생 고민서 장준아 최수연 한서희)

선플사진 대상(관동초등학교 학생 박민기)

"선플 수필

제자 샤이니 '종현'과 교사 '공원기'

공 원 기 대신중 교사

이제 서서히 코로나 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 '코로나의 억압'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지도 벌써 4년째이다. 지친다. 힘들다. 교사도 학생들도 지치고 힘든 것은 매한가지이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리라. 그런데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많은 악플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나는 또다시 나의 머리를 움켜쥔다. 또.....또.....또다시 유명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연예인 2PM(투피엠) 멤버 이준호 유재석, 성시경, 전효성, 강원래 김송씨를 비롯하여 이재영, 이다영 사건을 언급한 후 심한 악플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김요한 선수까지 최근 악성 댓글은 극에 달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고(故)고유민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악성 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알려지자 악플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예뉴스에 이어 스포츠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소통 창구를 막는다고 해서 악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포털 내 검열을 강화해야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선플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작금의 교육 현실은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경제적 실현 불가능의 의지를 보이며 실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내가 선플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계기도 또한 악플로 인한 제자의 죽음 때문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제자,샤이니 '종현' ,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방송에선 그가 춤추고 있다. 밝게 웃으며 춤추고 있다. '선생님. 자 이제 떳어요!' 수화기 너머 밝게 웃던 제자 '종현'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그 놈의 악플 때문이었다.....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악플의 악령'은 우리를 떠돌고 있다. 해괴망측하게도.....나는 머리카락을 움켜 쥘 수 밖에 없다.

선플이란, 꼬리말을 달 수 있는 게시물에 꼬리말을 좋게 올리는 것 또는 게시판에 올려진 내용이 칭찬받아 마땅해서 좋게 평가하여 게시판 아래 꼬리말을 올리는 것이다. 교직생활 초반, 선플이란 용어를 몰랐을 때 세상 물정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그러던 중 인터넷 기사를 읽게 되었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았다. 댓글 중에는 그 기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고, 그 기사를 응원하거나 힘을 주는 착한 댓글도 있었다. 두 댓글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악플을 달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착한 댓글 쪽에 마음이 다가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교직이란 특성에 사로잡혀 학생들 지도에 몰두하던 중 나의 수업과 관련하여 수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고, 블로그를 만들어 나의 지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관련 지식과 사진을 탑재하고 효과적인 학습법을 공유하는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을 했다.

그리고 첫 게시물로 문법에 관련된 공부법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블로그를 찾아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좋은 감정으로 블로그에 대한 애착이 점점 강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몇몇 댓글은 정말 충격이었다. 물론 장난으로 쓰여진 글이었지만.....정말로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그 날 이후로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점차 왜 내가 이러한 블로그를 운영해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 블로그에 댓글이 또 올라왔다는 문자가 울렸다. 우울한 마음에 댓글을 볼 엄두조차 못 냈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서 열어 보았다. 댓글을 보니 맨 밑에 나를 응원하는 글 하나가 올라 와 있었다. '너무 훌륭합니다. 이대로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글도 기대 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나는 그때까지의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또 나의 충동적인 생각들이 날아가 버렸다.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 댓글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부터였다. 그때부터 나는 선플과 악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선한 글, 즉 선플의 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 같은, 악플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블로거나 기사에 선플을 쓰기 시작했으며 내가 수업하는 학생들에게 선플의 효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도 처음 선플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힘내세요, 파이팅, 행복하세요 등 단순한 댓글 밖에 못 썼단다. 하지만 점점 계속 선플을 쓰다 보니 점차 각각의 기사나 블로그의 내용에 알맞은 선플을 쓰게 되었단다. 너희들도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련?" 물론 계속 선플을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은 내가 실제로 내 글에 달린 선플을 읽었을 때의 그 느낌과 내가 다른 기사에나 블로그에 선플을 달면 기사나 블로그 쓴 사람들이 고맙다고 답변해 줄 때 그 뿌듯함, 이 두 가지가 원동력이 되어 준 것 같다.

샤이니 '종현' 때문에 더욱 열심히 선플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초창기 나는 선플 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많이 뿌듯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을 통해 선플은 사람의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사람들은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인터넷 세상 속에서 풀면서 악플 등을 달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악플을 쓴다. 자신이 쓴 악플이 다른 이의 목숨을 앗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체 말이다.

나는 이 수필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조금씩이라도 선플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한다. 선플은 한 사람의, 어쩌면 당신의 이웃이, 친구 또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당신의 선플 한마디가 바로 그 '열쇠'라는 것을.....

PS : 지금 이 글을 쓰는 날짜. 2022년 10월 14일.....오늘 뉴스에 이렇게 나온다... (故)설리, 오늘 3주기…25세에 멈춘 아름다운 청춘.....가슴이 먹먹하다.

선플표어 대상(영선중학교 학생 이수민)

선플SNS 대상(나산초등학교 교사 박홍수)

논 | 문

Z세대의 주접 댓글 문화와 선플의 상관관계

- 미디어 콘텐츠 소비 양상을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배경

언택트 시대의 도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이어졌다. 사람들 간의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직장인들은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업무를 처리했으며 쇼핑, 취미 등 여가생활 역시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렇게 우리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이 어느 때보다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년 발표한 '디지털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4시간 가량을 디지털 콘텐츠에 소비하고 있으며 1인 평균 2.7개의 유료 플랫폼을 구독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신현지, 2022) 즉 이용자들은 온라인 동영상, 온라인 공연, 메타버스, 오디오 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Z세대'는 떠오르는 주요 콘텐츠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다. 일명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불리는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하게 자란 세대로, 1995년 이후부터 2010년경까지 출생한 이들을 지칭한다.(최윤영, 2019) 이들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영상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며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의 특성을 보인다. 콘텐츠에 관련한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며 더 나아가 생산자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제작하는 등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Z세대의 콘텐츠 소비 패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하나의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소비하는 적극적인 콘텐츠 소비자인 동시에 SNS를 통해 직접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유행하는 문화에 참여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이다.(최지은, 2021년)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는 점점 많은 대중에게 확산되어 2차 콘텐츠가 쏟아지며 다양한 미디어나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열광하는 콘텐츠에서 시작해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된 것이 바로 "주접댓글 문화"이다. 주접댓글은 과할 정도의 수식어로 좋아하는 대상을 칭찬하거나 찬양하는 댓글을 의미한다. Z세대를 주축으로 시작된 주접댓글 문화는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어 '댓글모음영상'과 같은 2차 콘텐츠와 k-pop아이돌의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주접댓글 문화를 이끌어가는 Z세대의 인식과 선플과의 상관관계를 미디어 콘텐츠 소비 양상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의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력 소비자인 Z세대를 중심으로, 그들이 만들어 가는 '주접 댓글 문화'와 '선플'의 연관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개방적이고 인터렉티브한 미디어 공간에서 댓글이 가지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플랫폼인 만큼, 어린 나이부터 비윤리적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 잘못된 가치관과 소비 행태에 익숙해져 악성 유저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9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의 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선플 달기'의 노력을 강조했다. 콘텐츠에 처음 달리는 댓글 몇 개가 뒤따르는 댓글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좋은 댓글이 먼저라면 다음도 건전하고, 나쁜 댓글이 먼저 달리면 분위기가 악플로 쏠린다."라고 말했다.(김승한, 2022년) 이렇게 온라인 공간 속 댓글은 콘텐츠 이용자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Z세대 사이에서 향유되는 댓글 문화를 점검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주접 댓글 문화'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수식어를 사용하여 좋아하는 대상을 찬양하는 댓글을 일컫는다. '2PM 준호의 우리집 영상',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역주행' 등 댓글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양상을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제는 영상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을 함께 소비하며 또 하나의 콘텐츠로 제작되는 하나의 알고리즘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원래 주목받지 못했던 콘텐츠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k-pop 아이돌들의 역주행을 이끌어 내기도 하고, 무엇보다 영상을 볼 때 불편한 감정 보다는 유쾌한 시청을 도와준다는 측면에 있어 '선플'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주접 댓글 문화'가 선플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현세대가 공유하는 문화이자 선플의 또 하나의 형태로 친숙하게 자리 잡을 만큼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접 댓글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선플의 현주소를 짚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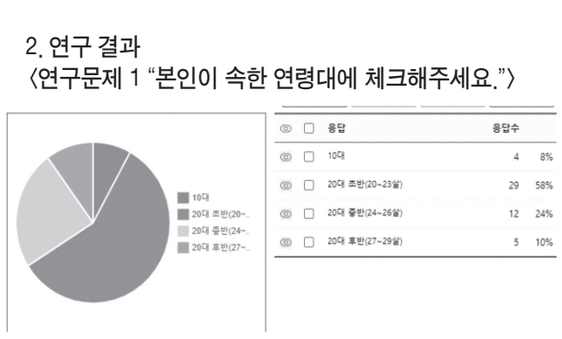
Ⅱ. 본론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접 댓글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주요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Z세대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질문지법을 활용하였다. 미디어 콘텐츠 소비 양상 및 주접 댓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선플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9개의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10대 ~ 20대 후반 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2. 연구 결과

〈연구문제 1 "본인이 속한 연령대에 체크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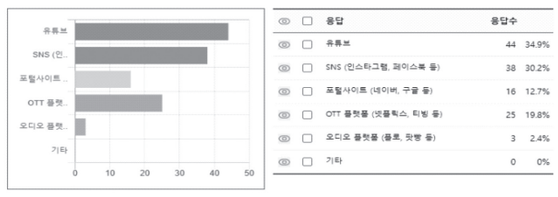


응답	응답수	
10대	4	8%
20대 초반(20~23살)	29	58%
20대 중반(24~26살)	12	24%
20대 후반(27~29살)	5	10%

그림 1.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의 연령대

20대 초반(20~23살)이 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대 중반(24~26살)이 24%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대 후반(27~29살)이 10%, 10대가 8%로 집계되었다.

〈연구문제 2 "평소 본인이 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미디어 매체는 무엇인가요?"〉



응답	응답수	
유튜브	44	34.9%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38	30.2%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등)	16	12.7%
OTT 플랫폼 (넷플릭스, 티빙 등)	25	19.8%
오디오 플랫폼 (플로, 팟빵 등)	3	2.4%
기타	0	0%

그림 2. 설문 대상의 주요 소비 미디어 매체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Z세대는 영상 매체를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유튜브가 34.9%, OTT 플랫폼이 19.8%로 영상 기반 미디어 플랫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누구나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고, 무료로 오픈된 공간에서 사람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을 '친유튜브 세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3 "콘텐츠를 볼 때 댓글을 확인하는 편인가요?"〉

응답	응답수	
1	1	2%
2	1	2%
3	7	14%
4	17	34%
5	24	48%

그림 3. 콘텐츠와 댓글을 함께 소비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으로 체크한 결과, 콘텐츠와 댓글을 함께 소비하는 케이스(4&5점)이 87%로 집계되었다. 이는 부정의 답변을 한 케이스가 4%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Z세대는 댓글에 매우 친숙한 세대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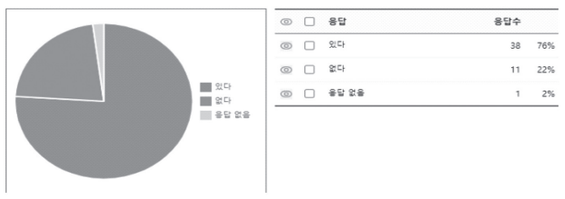
〈연구문제 4 "콘텐츠를 소비할 때 댓글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답	응답수	
재밌어서	9	18%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30	60%
콘텐츠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5	10%
직접 댓글을 쓰기 위해서	2	4%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3	6%
기타	0	0%
응답 없음	1	2%

그림 4. 콘텐츠와 댓글을 함께 소비하는 이유

그렇다면 이들은 왜 댓글과 콘텐츠를 함께 소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일까? 통계자료에 따르면, 약 60%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라고 응답했다. "재밌어서", "콘텐츠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지만 다른 이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이를 통해 Z세대의 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은 과거 매스 미디어 시대의 수동적 수용자와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이는 미디어 플랫폼에 형성된 공론장에서 타인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연구문제 5 "댓글로 인해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감정, 생각 등이 변화한 적이 있나요?"〉



응답	응답수	
있다	38	76%
없다	11	22%
응답 없음	1	2%

그림 5. 댓글로 인한 기존의 인식 변화 여부

미디어 플랫폼은 개방적이기에 상호작용이 용이하다는 특성도 지니지만 동시에 타인의 의견에 쉽게 노출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콘텐츠와 부정적인 콘텐츠 모두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약 76%의 응답자가 변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통해 댓글이 가지는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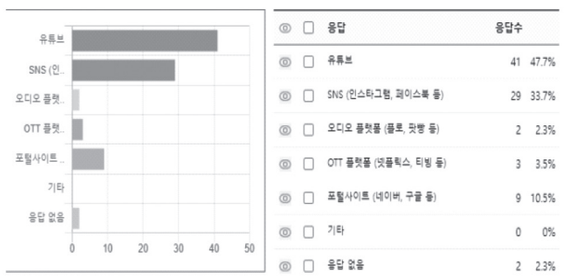
〈연구문제 6 "'주접 댓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응답	응답수	
예	48	96%
아니요	1	2%
응답 없음	1	2%

그림 6. 주접 댓글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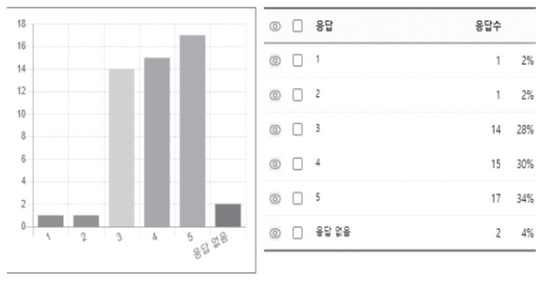
응답자의 96%가 주접 댓글에 대해 알고 있다. 즉, 주접 댓글 문화가 Z세대를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그들을 기점으로 주접 댓글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문제 7&8 "주접댓글을 주로 접하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 "주접댓글에 대한 본인의 선호도를 체크해주세요."〉



응답	응답수	
유튜브	41	47.7%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29	33.7%
오디오 플랫폼 (플로, 팟빵 등)	2	2.3%
OTT 플랫폼 (넷플릭스, 티빙 등)	3	3.5%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등)	9	10.5%
기타	0	0%
응답 없음	2	2.3%

그림 8. 주접 댓글 소비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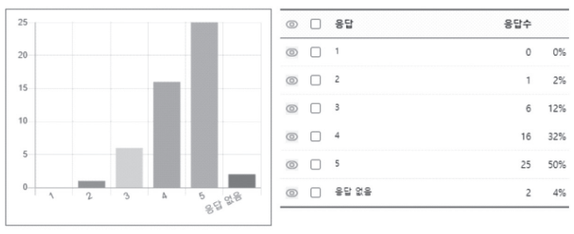


응답	응답수	
1	1	2%
2	1	2%
3	14	28%
4	15	30%
5	17	34%
응답 없음	2	4%

그림 9. 주접 댓글에 대한 선호도

주접댓글을 접하는 미디어 매체는 유튜브가 47.7%로 제일 높았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포함하는 SNS가 33.7%로 2위를 기록했다. 주접 댓글을 모아 2차 제작한 '댓글모음 영상'이 유튜브에서 처음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주접 댓글에 대한 선호도는 부정적이다(1점) ~ 긍정적이다 (5점)으로 조사하였을 때, 보통이다와 긍정적이다의 의견이 30%대로 비슷하게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 대다수가 주접 댓글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며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문제 9 "주접댓글이 선플(선한 댓글)의 한 종류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응답수	
1	0	0%
2	1	2%
3	6	12%
4	16	32%
5	25	50%
응답 없음	2	4%

그림 9. 주접댓글과 선플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

연구의 핵심 주제였던 주접 댓글 문화가 선플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50%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가 32%로 긍정적인 여론이 전체의 82%를 차지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해 Z세대는 선플의 또 다른 형태로 주접 댓글 문화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선플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의 구조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는 Z세대를 중심으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주접 댓글 문화'가 선플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유튜브와 같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타인의 댓글이 콘텐츠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주접 댓글에 대한 선호도 등을 연구 문제로 상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렇게 수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Z세대의 판플레이 특성과 선플이 결합한 형태로서 '주접 댓글'은 유의미하게 기능한다. 이때 판플레이란 판과 PLAY의 합성어로 콘텐츠에 직접 개입하는 과정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고 이에 따라 수동적으로 보고 듣는 게 아니라 판을 만들어 다른 이들과 함께 노는 Z세대의 특성을 의미한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0) 이러한 판플레이 성향을 가진 Z세대는 본인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판, 즉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찾아 다니며 직접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접 댓글'은 그들에게 흥미로운 놀이로 다가왔으며 실제로 주접 댓글 콘텐츠의 당사자인 연예인들이 직접 읽고 반응하는 영상, 주접 댓글들을 모아 가공한 ~댓글 모음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는 콘텐츠를 넘어 누가 더 언어유희를 잘 활용해 흔히 '주접을 떠는지'가 관건이 되었을 정도로 Z세대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자극적인 콘텐츠와 연예인 등을 향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요즘, 현세대만의 소통 방식으로 작용한다. 재미있고 기발한 주접 댓글은 일상이 지치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제공한다. 또한, "아이유의 목소리가 거품 같아. 언빌리버블.", "바닥 보이면 오션뷰, 도시가 보이면 시티뷰, 마마무가 보이면 알라뷰" 등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향한 주접 댓글은 긍정적인 팬덤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이렇듯 찬성과 반대의 대립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과거의 댓글 문화와 달리 주접 댓글은 댓글창을 유쾌하고 즐겁게 변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Z세대에서 출발한 오늘날 선플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주접 댓글은 더 나아가 광고계의 마케팅에도 하나의 트렌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빙그레, 오뚜기, 동아오츠카 등이 SNS에 주접 댓글을 염두에 둔 콘텐츠를 선보이며 Z세대가 댓글로 함께 놀 수 있는 판을 제공한다. (김건희, 2020) 전우영 교수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전우영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에서 활동시간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미 주접 댓글이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상황이어서 더 많은 젊은 누리꾼이 주접 댓글 놀이에 노출되고 그 매력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향후 세대에는 또 다른 오늘날의 '주접 댓글 문화'와 같은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플은 현시점의 사회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꾸준히 변화해 나갈 것이며 그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선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확장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건희, (2020년 9월 1일), [사바나] '주접 댓글' 놀이에 빠진 MZ세대, 신동아

김승한, (2022년 6월 13일), '79만 구독' 의사 유튜버.."재미없다" 조롱에도 자극적 콘텐츠 안한 이유, 머니투데이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0년 4월 28일), Z세대가 반한 요즘 놀이, 주접 댓글을 아시나요?, 대학내일 뉴스레터

신현지, (2022년 1월 5일), 디지털콘텐츠 소비..."하루 평균 4시간 · 유료 플랫폼 2.7개 구독", 중앙뉴스

최윤영, (2019), Z세대 콘텐츠 소비 특성에 따른 향후 미디어 콘텐츠 변화 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1c39246cefc168a7ffe0bdc3ef48d419&outLink=K

최지은, (2021년 7월 23일), MZ 세대가 좋아하는 SNS 콘텐츠 A to Z, 제일기획 매거진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나영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플인성신문 2014년 11월 28일 창간

발행인 · 민병철 편집인 · 조응태 인쇄 · 장용호

발행처 (재)선플재단 본사 066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3 서초타운트리팰리스 802호

대표전화 02)535-3449

편 집 국 02)535-3156 E-mail sunfull@bcm.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논 | 문

선플활동 경험이 한국청소년들의 공격성과 혐오표현에 미치는 영향

민병철(중앙대학교), 박근일(구세군대학원대학교), 오경숙(국제대학교), 윤상용(국제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 즉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현실로 인해 청소년의 공격성, 혐오표현이 반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플활동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혐오표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 아래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플운동본부에 등재된 중고등학교 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동의을 구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및 자료들의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이루어진 이후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C ver.를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전반적 공격성이 낮아졌고, 특히 선플활동에 참여할수록, 선플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업에 쫓기는 현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교과목 중 하나로 선플활동이 편성되게 되면 더욱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청소년의 인성교육 차원에서는 물론 바른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선플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키워드)
선플활동, 공격성, 혐오표현, 사이버 폭력, 정보윤리

Ⅰ. 서론

청소년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세대인데, 이들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같은 소셜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상생의 공간을 창조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2]. 특히 정보사회의 등장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디지털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현대의 청소년들은 유년시기부터 디지털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21세기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청소년들의 생활습관 또한 빠르게 변화시켰으며 인터넷 속 공간은 그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속의 공간과 문화를 창출해 내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과는 달리 인터넷 공간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 얻을 수 있으며,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음악 감상과 동영상 시청, 게임과 같은 여가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순기능이 존재한다[3]. 반면, 인터넷 사용에 있어 순기능에 반하는 역기능도 존재하는데, 인터넷에 대한 과다 몰입으로 인한 중독과 게임·채팅 등으로 초래된 자기통제력의 상실, 학업의 부적응, 악성 댓글의 게시와 정서적인 무기력감 등이다[4]. 또한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을 높이고 문제 행동을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5].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자신들의 생활 일부로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적,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압력으로부터 공격성과 충동성을 적절하게 조절할 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은 자신의 경험과 좌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매개하기 때문이다[6].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최근 이슈가 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의 문제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사회화되며 심각성은 점점 늘어가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없다. 이에, 악성댓글의 피해자가 바로 가해자로 전환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 속에서 표현되는 공격성은 오프라인과 달리 텍스트(text) 기반으로 표현되기에 악성 댓글, 채팅을 통한 상대방 모욕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유형은 대다수가 혐오표현(Hatespeech)을 통해 이루어지고는 하는데, 혐오표현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젠더의 비하, 부모 비하, 성소수자 비하, 단순욕설과 같은 사례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가인권위원회[10]의 201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조사대상자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82.9%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혐오표현에 대해 청소년들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86.2%)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이행한다면 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으나, 청소년의 공격성으로 인해 발현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방어논리 때문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혐오표현과 차별, 폭력 간의 상관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11],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곧 권력의 남용이자, 실효성이 없고, 발화자의 입장에서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이끌게 되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커다란 손상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본다[12].

이런 청소년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으로 청소년의 체험활동,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2014). 자발적 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Arthur et al, 2002), 자기조절능력을 높여(W. H. Min, 2019; Zeidner et al, 2000), 폭력성을 조절(김지윤, 강현아, 2019)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만족을 하게 되면 봉사활동에 자발적 참여 횟수가 높아지고, 오랜기간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주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악성 댓글로 인한 청소년의 공격성, 혐오표현의 반사회적 문제로 인해 타개책으로 제시되었던 선플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선플활동'을 그 해결 방안으로서 주목하였다.

선플활동은 인터넷 상에서 선한댓글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자발적 봉사활동이다. 선플활동은 인터넷에서 악성댓글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바르고 따뜻한 언어 사용으로 밝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은 온라인 공간과 더불어 오프라인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공격성과 혐오표현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는 선플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이버 공간 속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플활동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혐오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선플활동이 청소년들의 행동조절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공격성과 혐오표현 절감의 방법으로 '선플활동'은 물론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선플활동의 경험 여부와 선플활동 참여기간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선플활동의 경험 여부와 선플활동 참여기간은 청소년의 혐오표현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9월 말일 현재, 선플운동 홈페이지(www.sunfull.or.kr)에 등재된 선플운동 참여학교 20개 중 서울소재 4개, 경기소재 4개, 경북소재 4개의 중고등학교의 학생(1학년~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지역적 간섭효과를 줄이기 위해 조사대상지는 서울, 경기, 경북 세 곳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로 선발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임선생님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에 의거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본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동의을 구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및 자료들의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이루어진 이후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배부 및 수거는 각 학교의 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은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각 학교의 교사를 통하여 배부되었으며 연구목적을 충분히 밝히고 성실히 응답하기를 요청했다. 설문조사는 총 4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7부를 제외 한 410부를 연구의 최종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410명의 기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n=410)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선플참여경험	유	205	50.5	성별	여성	214	52.2
	무	205	50.5		남성	196	47.8
선플참여기간	12개월이하	99	48.3	학년	중학생	179	43.7
	12~24개월이하	65	31.7		고등학생	231	56.3
	24개월이상	41	20.0				

2.2 측정 도구

2.2.1. 청소년의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ee & Frick(2007)가 개발하고 타당도를 확보한 또래갈등척도(PCS; Peer Conflict Scale)를 한영경(2008)이 번역한 뒤 임상심리학 교수진을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마친 31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만점의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래갈등척도는 청소년들이 지닌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공격만이 아니라,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반응적-관계적 공격성, 반응적-외현적 공격성 등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은 '놀림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언가를 부술 것이다'와 같이 특정한 외적 자극으로부터 반응적(反應的)인 공격성이자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공격성이며, 주도적-외현적 공격성은 '게임 혹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와 같이 개인이 주도적인 의도로 표현된 공격성을 일컫는다. 반응적-관계적 공격성은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때때로 그 사람에 대한 뒷말을 한다'와 같이 특정한 외적 자극으로부터 나타나는 공격성이나 공격성이 사람 간 사이의 관계성에 기반한 공격성이며, 주도적-관계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은 재미있다'와 같이 개인이 주도적으로 사람 간 사이의 관계성에 기반한 공격성의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변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표 2와 같다.

2.2.2 청소년의 혐오표현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을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로, 협의적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2016)가 제시한 혐오표현의 유형을 바탕으로 악성 댓글과 연계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온라인 혐오표현과 관련한 척도를 활용한다. 이는 '차별적 괴롭힘', '차별의 표시', '공개적인 멸시와 모욕', '공개적인 위협', '증오 선동'으로 이루어진 다섯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혐오표현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0이었다.

2.2.3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적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가 사회과학 연구이기에 각 공격성의 하위 차원의 설문 도구들과 혐오표현 설문 도구의 상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사각회전방식 중 오블리민(Direct Oblimim)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의 유의성 결정은 KMO의 표본적합도(MSA),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공격성과 혐오표현 척도 45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주도관계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9번, 10번 문항과 반응외현 9번 문항에서 .50 미만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들이 제거되었다. 9문항을 제거한 후 36문항의 KMO의표본적합도(MSA)는 .985로서, '꽤 높은 편인 값'의 기준을 부합시키고 있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x^2=25854.240, 자유도 990, p=.000으로 유의수준 0.001 미만에서 각 측정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각각의 요인중 1요인은 '주도관계' 2문항, 2요인은 '반응외현' 9문항, 3요인은 '반응관계' 10문항, 4요인은 '주도외현' 10문항, 5요인은 '혐오표현' 5문항이었다. 나아가, 각 요인별 신뢰도를 도출한 결과 모두 .900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주도관계 요인이 모형의 설명력이 70.025%로 가장 높았으며, 차례로 반응외현이 6.809%, 반응관계가 1.965%, 주도외현이 1.745%, 혐오표현이 1.353%의 설명력을 가져 총 다섯 가지 요인들의 설명력은 81.897%로 준수하였다.

표 3. 공격성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항목	공통성	요인 1	2	3	4	5	Cronbach' s α
주도관계6	.877	.574					.904
주도관계8	.856	.573					
반응외현4	.796		.886				
반응외현5	.772		.831				
반응외현6	.831		.806				
반응외현2	.718		.781				
반응외현3	.767		.774				.965
반응외현1	.658		.746				
반응외현8	.822		.724				
반응외현7	.732		.671				
반응외현10	.779		.664				
반응관계5	.860			-.870			
반응관계7	.859			-.862			
반응관계9	.818			-.853			
반응관계8	.846			-.843			
반응관계6	.809			-.823			.977
반응관계4	.806			-.817			
반응관계10	.793			-.778			
반응관계3	.839			-.690			
반응관계2	.784			-.655			
반응관계1	.811			-.585			
주도외현4	.836				-.848		
주도외현5	.798				-.829		
주도외현6	.798				-.816		
주도외현7	.807				-.784		
주도외현8	.796				-.779		.974
주도외현3	.778				-.773		
주도외현2	.829				-.683		
주도외현9	.778				-.679		
주도외현10	.777				-.641		
주도외현1	.797				-.610		
혐오표현3	.840					.871	
혐오표현5	.800					.851	
혐오표현4	.751					.663	.950
혐오표현1	.793					.646	
혐오표현2	.809					.544	
요인명		주도관계	반응외현	반응관계	주도외현	혐오표현	
고유값		31.511	3.064	.884	.785	.609	
분산비율		70.025	6.809	1.965	1.745	1.353	
누적분산비		70.025	76.834	78.799	80.543	81.897	

※Extraction Method: MLF(Method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Rotation Method: Direct Obli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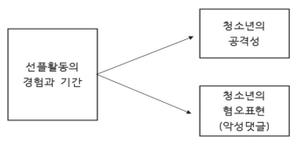
[표 4] 표본적합도 및 구형성 검정 결과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0.98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 x^2	25854.240
	자유도(df)	990
	p	.000*

*p<.001

2.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플활동의 경험여부와 참여기간에 따른 청소년들의 공격성의 차이와 혐오표현의 수치의 차이를 검정하여 청소년들의 선플활동이 그들의 공격성 및 혐오표현의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한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 연구 모형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C ver.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초통계량을 도출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선플활동 경험의 기간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과 혐오표현의 선형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선플활동 경험 여부와 참여기간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선플활동 경험 여부와 참여기간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선플활동 경험 여부와 가입 기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계수 B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β	t	p	F	R^2 (adj. R^2)
경험여부	(상수)	-.272	.566		-.480	.632	.111	.001 (-.009)
참여기간	주도-관계적 공격성	-.242	.558	-.031	-.434	.665		
		.001	.008	.012	.167	.867		
경험여부	(상수)	.517	.399		1.295	.197	6.044**	.056 (.047)
참여기간	반응-외현적 공격성	-.940	.394	-.163	-2.390*	.018		
		-.014	.006	-.179	-2.623**	.009		
경험여부	(상수)	.112	.481		.232	.817	.635	.006 (-.004)
참여기간	반응적-관계적공격성	.533	.474	.079	1.125	.262		
		.001	.007	.008	.111	.912		
경험여부	(상수)	-.316	.395		-.800	.425	3.306*	.032 (.022)
참여기간	주도-외현적 공격성	.865	.389	.154	2.222*	.027		
		.008	.005	.096	1.385	.168		
경험여부	(상수)	2.773	.369		7.524	.000	3.083*	.030 (.020)
참여기간	공격성 전체	-.786	.363	-.150	-2.164*	.032		
		-.007	.005	-.091	-1.307	.193		

*p<.05, **p<.01.

선플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F=3.083(p<.05)로 유의수준 .05 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선플활동의 경험여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t=-2.164, p<.05) 그 영향력은 표준화계수 베타값이 -.150인 것으로 보아, 선플활동의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춰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선플활동의 경험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플활동 경험 여부와 가입 기간에 따른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F=6.044, p=.003으로 유의수준 .01 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플활동의 경험여부(t=-2.390, p<.05)와 선플참여 기간(t=-2.623, p<.01)은 각각 청소년의 반응적-외현적 공격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표준화계수 베타값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선플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을 낮추며(β=-.163), 선플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을 낮추는 것(β=-.179)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플활동 경험여부와 참여기간에 따라 반응적-외현적 공격성이 낮춰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선플활동 경험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른 주도적-외현적 공격성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F=3.306, p=.039로 유의수준 .05 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플활동 경험여부는 주도적-외현적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나(t=2.222, p<.05) 선플 참여기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t=1.385, p=.168) 이에, 선플활동 경험을 한 학생의 주도적-외현적 공격성이 선플활동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의 주도적-외현적 공격성보다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선플활동 경험 여부와 참여기간은 청소년의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및 반응적-관계적 공격성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선플활동 경험 여부와 참여기간이 혐오표현에 미치는 영향

[표 4-25] 선플활동 경험 여부와 참여기간에 따른 혐오표현 정도의 차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계수 B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β	t	p	F	R^2 (adj. R^2)
(상수)	혐오 표현	-.265	.501		-.530	.597	.394	0040 (-.006)
경험여부		-.344	.494	-.049	-.697*	.697		
참여기간		-.004	.007	-.041	-.579	.579		

선플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혐오표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F=.394, p=0.67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 즉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현실로 인해 청소년의 공격성, 혐오표현이 반사회적 문제 번지는 사실을 문제 인식하는 것에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폭력성과 혐오표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선플활동'이 대안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수행하게 되었다.

첫째, 선플활동 참여경험은 청소년의 전반적 공격성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반면 선플활동의 참여 기간은 청소년의 전반적 공격성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이 선플활동에 얼마나 오래 참여했는지 보다 실제로 선플활동에 참여해 활동을 꾸준히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사나 봉사활동 점수 등에 의해 청소년들이 선플 활동 단체에 가입을 하였더라도 선플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이 선플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 의지에 의해 선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전반적 공격성을 낮추는 선플활동은 청소년 개인에게 주어지는 결과 또는 보상 등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적 측면보다는 심리적·정서적 측면이 강조될 수 있는 다양한 선플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공격성 하위변인중 외현적 공격성에서 선플활동 참여경험과 참여기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선플활동에 참여경험이 많을수록, 선플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경험여부에 따른 공격성의 감소여부 차이와 엮어 해석하면 선플활동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혐오표현을 낮추는 효과가 즉각적이라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공격성의 분류 중, 외현적 공격성은 관계적 공격성과 배치되는 개념인데,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인 관계의 손상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 은밀하고 간접적 형태의 공격성[20]이며 외현적 공격성은 명백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신체 및 언어적 공격성을 포함하는 개념[20]이라는 점에 볼 때, 선플활동은 청소년의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을 낮추는 기제로 작용함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고, 각종 사회적 관계로부터 스트레스에 대해 면역력을 낮추는 기제로 작용하기에[21] 청소년의 내면에 대한 발달에 있어 선플활동이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선플활동 경험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른 청소년의 혐오표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자발적이든, 봉사활동 마일리지가 필요했든 어떠한 이유로라도 자기 스스로 '선플운동본부'에 가입한 청소년들이다. 즉, 청소년 스스로 선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환경이다 보니 선플활동 경험여부 및 가입기간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선플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의 정도가 선플활동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 보다 낮음을 볼 때, 선플활동은 청소년의 공격성의 감소에 있어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현적 공격성은 명백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신체 및 언어적 공격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선플활동이 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이버 폭력성에서 이어지는 오프라인의 학교폭력까지 연결지어 청소년의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드러났다. 특히, 다양한 청소년들의 공격성 절감을 위한 노력들은 외현적 공격성의 감소에 치중되고 있지만[22]그 효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선플활동은 청소년의 혐오표현과 욕설 등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외현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선플활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선플활동의 경험 여부와 기간에 따라 혐오표현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선플활동에 대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관심 또한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특정 학교의 학생들의 결과로 일반적인 결과로 확장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감안해야한다는 점과 둘째, 선플활동에 있어 다양한 환경요소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선플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청소년의 심리적 교육 도구로서의 효과성이 다양한 차원에서 검증된다면 보다 선플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선플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축적될 것이라 생각된다.